

◆ 國內外 情報 ◆

## 日, 産業기기 海外 영업력 강화 - 電機 3社, 事業재구축도 가속화 -

日立·東芝·三菱 등 일본의 종합전기메이커 3社は 94회계연도중에 산업기기부문의 해외영업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재구축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들 3社は 금년도 매출목표를 전년도 수준으로 잡고 있으나 일본내 시장에선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영업력을 강화, 이를 커버키로 했다.

또한 금년도를 '산업기기비즈니스 재구축 준비의 해'로 설정, 90년대 후반에 있을 재구축에 대비키로 했다. 아울러 이미 착수한 일련의 합리화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생산체제 정비 ▲국제적 시야에 의거한 자재·부품의 조달 ▲현행기종의 정리·통합 ▲해외기업 또는 일본내 동업메이커간 수평분업을 포함한 협조체제 구축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日立은 지난해 가을 미국의 유력메이커인 A-B(알렌브리드리)社와 제휴했는데 이 효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日立은 당분간 PLC(프로그램머블콘트롤러)의 주변기기를 A-B社로부터 공급받아 PLC시스템의 영업력을 강화키로 했다.

당분간 A-B社의 바코드리더등을 취급하다가 차츰 자사판매망을 이용, 단품판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 양사가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A-B社は 미국 PLC시장에 틈새어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공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공업이 활기를 띠면 일본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도 양사의 협력 움직임이 현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메이커에 비해 일찍 국제적 시야를 키워왔던 東芝는 중국에서 범용인버터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일본산 범용인버터는 품질이 우수, 중국에서도 잘 팔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력 부족은 썬에너지 기능이 뛰어난 범용인버터의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三菱電機는 산업용기기중 PLC의 일본내 세어가 40%에 달하는 등 톱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생산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전력측량계, 태국에서 모터·전력측량계, 대만에서 트랜스·배선용차단기·전기개폐기·콘덴서·소형 PLC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NC를 생산함으로써 해외생산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日, 汎用컨버터 생산증가 - 산업계 需要범위 계속 넓어져 -

일본의 범용컨버터 생산이 크게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日本電機工業會가 발간한 금년도 '인버터산업의 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95년 일본업계의 컨버터 매출액 규모는 800억엔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작년도 매출액 규모는 전년대비 4%가량 증가한 627억엔 정도였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해외시장의 확대, 기존 모터의 속도변화, 소형 및 고기능 제품에 의한 신시장의 개척이라는 3가지 전략목표가 잘 맞아 떨어질 경우 이같은 매출액 달성은 아주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매출예상액은 공식수치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업계 나름대로의 통계에 근거한 내부자료이다. 하지만 日本電機工業會 가입업체들의 작년 상반기 매출실적을 보면 금액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두 자리수의 신장을 한 곳이 꽤 많아지고 있다. 수출이 한꺼번에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100KVA 이상의 기종이나 주변기기까지 통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다.

금년도 시장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수요측인 제조업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침체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이것 저것 플러스 요인들을 감안하면 내수출하의 경우 대수기준으로는 10% 증가,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도 보합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일본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다가 아직 개발여지가 많은 중국측에서도 각省市의 높은 에너지 수요에 힘입어 컨버터 주문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부 메이커들의 현지생산분을 감안하더라도 어찌면 급격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 업계의 범용컨버터의 수출비중은 전체 매출규모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 중으로 약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내수시장에서의 매출액이 담보상태에 있더라도 수출증가에 힘입어 금년도 전체 매출액 신장률은 적어도 5%, 많으면 두자리수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몇년 동안 일본의 범용컨버터 기술혁신은 눈에 띄게 진척되고 있다. 저소음내지 무소음 기기는 이미 일반화된 상태고 소형·고기능으로 조작성이 뛰어난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더우기 일본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신규설비 투자는 줄이는 대신 기존설비를 고쳐 재사용하는 경우는 늘고 있다. 그만큼 컨버터의 수요여지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3, 4년에 한번씩 교체하던 기계를 완전 신기종으로 교체, 기계는 물론 시스템 전체의 기능을 향상해나가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어 내수수요 전망도 한없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기계식, 혹은 여타 단순 가변속 시스템을 사용해왔던 업체들이 완전 가변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어 범용 인버터의 수요범위는 계속 확대돼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범용 모터와 범용 인버터를 동시 판매함으로써 범용 모터의 매출부진도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의 산업용전기기계 산업은 대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용 컨버터의 경우 유망상품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각 딜러들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대부분 업종들이 금년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가운데 범용 컨버터만은 밝은 경기예측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日 電力社, 競争入札 비중 50%로

— 자재調達·工事 발주대 —

東京電力·關西電力등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자재조달·공사발주와 관련, 1社에 대해서만 견적을 제출케 하는 특명발주를 줄이고 대신 경쟁입찰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40%에 그치고 있는 각사의 경쟁입찰 비중은 5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전력회사들의 경쟁입찰비중 확대 결정은 공공공사 입찰·정부자재조달과 관련, 해외국가들의 투명성 향상요구에 대응하고 발주 경쟁확대로 코스트 삭감을 도모, 전력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간 5조엔과 민간설비투자의 10%를 점하고 있는 전력업계의 설비투자는 앞으로 이번 결정사항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전력회사들의 자재조달방법엔 특명발주와 기술력·품질관리가 일정수준에 도달한 복수기업을 경쟁시키는 지명입찰제가 있다. 그러나 경쟁입찰 비중이 낮아 자사 퇴직종업원등 연구자가 있는 관련회사가 입찰시 우선시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업자선정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비난을 국내외에서 받아왔다.

구체적인 경쟁입찰 확대방안으로 東京電力이 발주제도 개정에 착수, 94회계연도내에 경쟁입찰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또한 關西電力도 경쟁입찰 비중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경쟁입찰비중이 낮은 北海道電力도 빠른 시일내에 이의 비중을 50%로 높이며 中部電力은 93년도말까지 경쟁입찰 비중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 러시아, 運送기기용 배터리 輸入 증가 - 安全 증명서 필수 ... 고객 신뢰감 확보도 중요 -

러시아의 운송기기용 배터리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산 승용차 수입증가와 함께 특히 고가의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의 운송기기용 배터리 생산량은 92년에 610만개로 전년대비 13% 감소했으나 93년(1~11월)에는 620만개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같은 생산증가는 자동차 수요의 증가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데 기인한다. 그러나 국내 생산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배터리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연간 배터리 수요량은 약 750만개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 수입량의 증가와 맞물려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93년 1~6월중 수요량이 410만개에 달해 연간으로는 800만개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터리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는 신흥부유층의 증가와 상관되는 것으로서 92년말 현재 민간 승용차 등록대수는 1천만대에 달하고 있다.

92년도 배터리 수입은 전년대비 수량이 6% 증가한 136만 5천개, 금액은 61% 증가한 1억 5,878만 8천달러였다. 특히 고가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산 승용차의 수입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향후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2년도 對러시아 최대 배터리 수출국은 印度로 2,170만 2천달러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韓國 2,054만 9천달러, 獨逸 2,028만 1천달러, 오스트리아 910만달러의 순이었다.

93년 상반기에는 중국이 944만 1천만달러로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다음이 유고 867만 7천 달러, 독일 805만달러, 터키 150만달러의 순이다.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은 저렴한 가격 및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기인한 것이며 독일의 수출이 꾸준히 지속된 것은 독일산 자동차의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2년 러시아의 배터리 수출은 797만 7천달러로 전년대비 77% 증가했으나 93년 들어 국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외수출에서 획득하는 외화의 50% 강제판매 및 국내 시장가격 상승으로 대외수출 이점이 사라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생산업체의 수출확대 보다는 內需 위주의 판매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출은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산 배터리의 러시아내 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韓國產 수입은 92년 급증했다가 93년 이후 격감 추세에 있는데 92년의 급증은 經協에 의한 것이었으며 93년은 순수 민간차원의 교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협이 중단된 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산이 등장하면서 진출이 격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이미 오래된 독일 등은 자체 시장기반을 갖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자동차 진출이 초기단계에 있어 92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한국산 자동차의 확대와 더불어 다소의 증가가 예상된다.

국유자산의 사유화가 진전되면서 유통구조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소유주가 국가인 국영기업은 식품소매 및 백화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유통자유에 관한 대통령령(92년 1월)에 의해 유통과정에서 일체의 간섭없이 민간상인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 1월 1일 이후 外貨를 사용한 물품거래가 금지됨으로써 외화상점을 중심으로한 西歐產의 판매는 다소 애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외무역이 자유화되면서 무역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바이어를 물색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수입관세는 5%이나 한국산은 開途國관세를 적용받아 2.5%가 부과된다. 수입관세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와 지나치게 차이가 날 경우 유사상품가격을 기준으

로 하는 경우도 있다. 기타 내국세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타 관리제도로 '안전성 인증을 요하는 상품의 러시아 연방으로의 수입에 관한 잠정절차' (93년 1월 1일 발표)에 의하면 배터리는 안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 상품으로 현재 Gost R(러시아 국가 규격위원회) 산하에 150여개의 국내검증기관이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러시아가 인정하는 국제안전규격은 IECQ(IEC 전자부품 품질인증제도), 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EEC UN 도로운송설비 표준화 시스템(자동차 설비 및 부품의 승인에 대한 단일한 승인 및 상호안전조건의 채택에 관한 협정)이다.

한국기업에 필요한 러시아가 인정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A형이고 통관시 개도국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 배터리 규격을 철저히 인식하고 기타 기술적 요구사항도 파악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배터리는 공업규격이 설정되어 있고 안전증명서가 필수적이다. 러시아는 겨울철이 길고 영하 20~30도 이하의 강추위가 상당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한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배터리를 공급해야 한다.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즉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서구산에 비해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 특히 러시아산 자동차의 Troublefree에 한국산 배터리가 효과적이라는 식의 광고가 효과적이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의 신뢰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형태의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판로개척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으로 自國공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부품을 공급하거나 투자하는 방법등으로 러시아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책에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제품의 특성상 전문딜러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개척의 첩경으로 러시아에는 전문 판매상이 없어 향후 전문딜러망 구축이 시급하다.

공공 운송수단 및 軍用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공화국 포함)는 배터리등 필요물품을 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따라서 입찰정보를 수집해 적기에 응찰함으로써 대량 판매 효과를 노릴 수 있다.

### ▲ 수입실적

〈단위 : 천개, 천달러〉

국 별	1992		93.1~6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인 도	134.6	21,702	1	246
중 국	56.5	11,306	131	9,441
터 키	32.6	4,322	23	1,500
유 고	118.9	5,057	248	8,677
오 스 트 리 아	71.3	9,100	0.045	5
이 탈 리 아	250.3	17,021	22	1,246
독 일	42.8	20,281	21	8,050
한 국	430.5	20,549	8.5	244
스 페 인	105.6	6,975	-	-
불 가 리 아	35.6	1,697	8.9	500
마 다 카 스 카 르	35.6	1,697	8.9	500

〈자료 :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

## 美·日, 초고속 情報通信網 구축

### — 美·日등 汎國家 차원서 戰略的 추진 —

美國, 日本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우선 산업정책과제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美·日 양국은 정보통신망정비가 향후 국제경쟁력의 관건이 된다고 보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美國은 대통령 직속에 25명으로 국가정보기반구조(NII) 구가자문회의를 구성, △경쟁촉진을 위한 사업부문간 진입규제 철폐 △NII에 대한 민간투자의 촉진 △NII에 대한 공개적 망접속 허용 △국민에 대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美國은 이를위해 국가정보기반구조법·국가경쟁력강화법·정보접근개선법·통신기반구조 및 시설지원법등을 제정, 정보통신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를 통신사업자·영화社·CATV社·제조업체등 민간기업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세제지원시책을 강구중이다.

美는 전미과학재단(NSF) 주도로 연구교육전산망사업에 향후 10년간 정부재정에서 170억달러를 투입,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美國은 특히 오는 96년 기가(Giga:10억)급 넷트 시제품 개발완성을 목표로 고속교환기술(ATM등)·전송기술(SONET등)프로토콜·응용소프트웨어등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기획원은 “美國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마무리할 경우 그 여세를 몰아 아시 아태평양지역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면서 “UR타결은 외국 통신시장 개방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日本은 2010년에 123조엔에 이르는 멀티미디어시장과 24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 광통신망건설에 나서고 있다.

日本은 이를 위해 45조엔을 투입, 일본열도를 2010년까지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하는 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日本은 미국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응해 정보통신산업을 최우선 新산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부양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기획원은 분석했다.

경제기획원은 선진국의 광정보통신망구축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구축이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범부처적 협의를 통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원은 미국, 일본의 추진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후 가장 적합한 방식과 규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신부계획을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가트政府調達協定 가입 연간純경제효과 8억弗 - 加入國 전체시장 4천억弗 달해 -

우리나라가 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 97년부터 국내조달시장을 개방하는데 따른 경제적 이익은 물품을 기준, 연간 8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에서 열린 '정부조달협정 가입의 영향분석 및 제도보완방향' 정책협의회에서 산업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90년도 우리나라와 조달협정 가입국의 물품조달통계 및 경쟁력등을 감안, 파급효과를 분석할 경우 협정가입에 따른 직접무역수지 효과는 직접시장 잠식 효과가 2억3천만달러, 직접 해외수출증대 효과가 5억7천만달러로 연간 3억4천만달러의 수지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발전전동기(유발효과포함 시장잠식액 1417억원)와 전기·전자기기(494억원), 전문과학기기(493억원) 및 일반산업기계(375억원)등에서 국내시장잠식 효과가 큰 반면 사무용기기, 철강류, 섬유, 신발, 통신, 녹음기기등은 수출증대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9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 수출입 변화에 따른 관련산업의 생산증감 효과까지 고려한 총 경제적 효과는 국내 생산감소가 6억달러,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 생산증가 효과가 14억달러로 연간 8억달러의 순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연구원이 연구대상으로 한 물품분야외에 정부조달확장협상의 결과 새로 적용대상이 된 서비스·건설분야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조달시장 개방규모는 125억달러, 가입국 전체시장규모는 4천억달러(EU1500억달러, 美國 950억달러, 日本 400억달러)에 달함에 따라 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중 건설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상회하고 있음에 따라 시공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협정가입에 따라 국내업체의 경쟁력 향상 촉진과 조달제도의 합리화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 증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 도모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협정가입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아래 해외조달시장 정보의 신속한 국내전파등 지원체제의 구축과 함께 업계의 경쟁력 향상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조달협정은 79년 東京라운드에서 성립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로 가입국 상호간의 정부구매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 23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협정적용 범위를 중앙정부기관의 물품구매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물품과 건설, 서비스 구매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확장협상을 작년 12월 15일 타결했다

우리나라는 90년부터 협상에 참여,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시도 및 23개 정부투자기관을 양허대상으로 확정, 가입협상을 타결했다.

## 中振公, 기술·경영支援 대폭 强化

- 올 2천社 개별지도 ... 國際化 적극추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시장개방 가속화 등 날로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에 대응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지도를 크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中振公은 이를 위해 올해 1670개 업체에 대한 국내전문가 지도와 330개 업체에 대한 외국인 전문가 지도 등 총 2천개 업체에 대해 개별 기술 및 경영지도를 실시,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생산성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중점지도 대상은 국산화 개발업체·유망선진기술기업·협동화사업장·아파트형공장 등 공동단지 입주기업, 지역별 특화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 등이며 중점지도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전담지도역 제도(Home Doctor System)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담지도를 실시,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상의 애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지도 분야로는 기계분야의 비절삭소성가공기계·열유체기계, 전기전자분야의 센서 및 계측기기, 금속분야의 주·단조, 용접, 표면처리 및 열처리, 섬유화학분야의 염색가공, 정밀화학 등이 다.

또한 공통의 애로사항이나 최신 산업기술 및 정보를 일시에 대량보급하기 위해 10회의 집합지도 및 12회의 세미나를 계획하고 계열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및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60개 업체에 대해 모기업 합동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한일 양국간 무역불균형 개선 및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실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154명의 기술인력을 일본기업체에 파견하고 12회에 걸쳐 국내외 견학지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中振公은 7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1만790여 업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신제품개발·공정개선·생산성향상 등에 기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제공 및 부족한 기술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지도후 시설개체 및 증설 등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연계를 확대, 지도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베트남, 올 電力공급 好轉 전망 - 절전위한 단전은 없을 듯 -

베트남의 94년도 예상 電力생산량은 150억KWh로 예년보다 30억 KWh가 늘어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최소한 4개의 발전시설이 가동에 들어가므로 전력생산이 20% 늘어나는 반면 산업생산 증가율은 15%로 전력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있다.

남부지역의 고질적인 전력공급 부족현상은 베트남 정부가 Tra An 발전소와 北·南 送電線 건설사업에 집중투자,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또 乾期때 수력발전소 저수량에 따라 전력공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94년에는 Ba Ria 가스발전소 가동과 Tra An 및 Da Nhim 발전소 저수량이 충분해 건기에도 남부지역 전력부족 상태가 심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남부 전력공사는 남부지역 전력생산량은 93년 보다 17.5% 늘어난 55억KWh로 호치민市 지역 전력공급은 기술문제로 간헐적인 중단은 불가피하나 주기적인 절전형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 會員社 動靜 ◆

## 金星計電(株), 인버터 PLC사업 強化

金星計電(株) (代表 : 白重英)가 인버터 PLC분야에 대한 사업을 대폭 강화. 이부분의 국내시장을 장악한다는 목표아래 올초부터 현재의 전자영업부의 인버터과와 PLC양과를 양부로 승격시켜 사업부분을 이원화시켰다. 따라서 올해부터 인버터 부문 200억원, PLC 부문 200억원의 매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있다. 인버터 부문에서는 지난해말 국산화에 성공한 IGBT 제품을 올해부터 본격시판할 예정이며, 벡터 제품도 자체 국산화, 양산에 나설 계획으로 PLC 부문은 자체 개발품인 「마스터 K」의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려 공급하며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마스터 K-1000」